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국사)

성명

수험 번호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 선택 과목은 반드시 응시 원서 작성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수험표에 표기된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의 과목에 대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 해당란에 답을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입니다.

1. 다음은 고구려 초기 통치 체제를 설명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본래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힘이 약해져서 지금은 계루부가 왕위를 차지하였다.

○ 소노부의 대표는 본래 고구려의 왕이었다. 지금은 비록 왕이 되지 못하나 그 지위를 대대로 세습한 대인을 고추가라고 부른다. 부(部) 자체의 종묘를 세우고 하늘의 별과 사직에 따로 제사지냈다.

○ 모든 대가(大加: 각 부의 지배자)들도 왕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그 명단은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모여서 논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삼국지-

- ① 각 부는 중앙 왕실의 간섭을 받았다.
- ② 국왕은 각 부의 지배자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존재였다.
- ③ 국가의 중요한 일은 주로 부의 지배자들이 모여 협의하였다.
- ④ 국왕은 중앙 집권적인 관료 조직에 기초하여 국가를 통치하였다.
- ⑤ 각 부의 지배자는 관리를 거느리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였다.

2. 다음은 고려 후기 정치 세력에 대한 기술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점]

(가)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큰 전공을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나) 무신 집권기 이래 지방의 향리 출신으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였으며, 공민왕의 정치 개혁에 힘입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다) 무신 정권 붕괴 이후 정계의 요직을 장악하고 농장을 소유한 최고의 권력층이었으며,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시켜 갔다.

- ① (가)와 (나)는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 ② (가)는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다)와 손을 잡았다.
- ③ (나)는 공민왕의 개혁을 틈타 (다)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 ④ (다)는 몽고의 침입을 계기로 (나)와 손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 ⑤ (나)와 (다)는 원의 간섭 아래에서도 자주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3. 다음 유물과 유적에 공통으로 반영된 신앙은?



농경문 청동기



고령 양전동 바위그림

- ① 산신을 숭배하는 신앙
- ② 조상신을 숭배하는 신앙
- ③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 신앙
- ④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신앙
- ⑤ 동식물을 부족의 기원과 상징으로 숭배하는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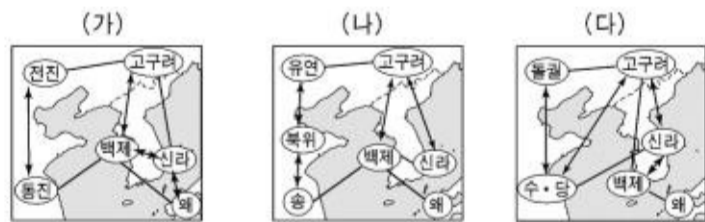
4. 다음 글을 통해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만일 노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50만전을 내야 한다. 비록 노비에서 벗어나 일반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풍속에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결혼하기를 꺼려하였다. 이처럼 법이 엄격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자가 거의 없어 문단속을 하지 않았다.

-한서-

- ①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다.
- ② 사유 재산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 ③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존재하였다.
- ④ 일반 백성의 대부분이 노비로 전락하였다.
- ⑤ 씨족과 부족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5. 다음 지도는 삼국 시대 대외 관계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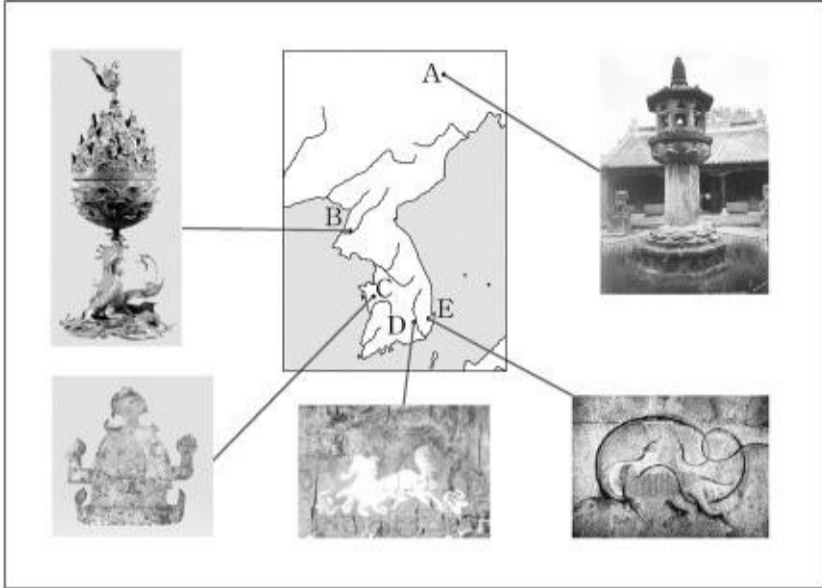
○ 적대관계 ←→
○ 친선관계 —

<보기>

- ㄱ. (가) 시기에 고구려는 중국의 전진을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
- ㄴ. (나) 시기에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였다.
- ㄷ. (나)와 (다) 시기 사이에 나·당 전쟁이 일어났다.
- ㄹ. (다)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은 신라가 중국 세력과 연합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6. 지도에 표시된 지역과 유물·유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A-----② B-----③ C-----④ D-----⑤ E

7.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점]

(가) 신문왕 7년(687) 문무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나) 신문왕 9년(689)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렸다.
 (다) 성덕왕 21년(722)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라) 경덕왕 16년(757)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마) 소성왕 원년(799) 청주 거노현을 국학의 녹읍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 ① (가), (나), (다)는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② (나), (다)는 장차 호족이 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 ③ (나), (라)는 토지와 농민을 둘러싼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다)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 ⑤ (마)를 통해서 관청에도 녹읍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다음은 경북 영주의 어느 사찰을 답사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이다. 사찰과 건물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사람은? [3 점]



기둥의 높이와 굽기, 사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추어 갖출 필요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 ① 순희: 이 사찰은 의천이 창건하여 천태종을 널리 펼친 곳이지.
- ② 정현: 이 사찰은 지눌이 수선사 결사 운동을 벌인 곳이기도 해.
- ③ 현숙: 이 건물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야.
- ④ 화영: 예산 수덕사 대웅전도 이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
- ⑤ 철수: 이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서 조선 후기에 다시 지은거야.

9. 다음 자료를 통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최치원은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라고 말하였다.
- 춘추(무열왕)는 김유신과 한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삼한을 통일하였으니, 나라에 공을 세운 것이 매우 크다.
- 당나라 현종이 성덕왕에게 조서를 내려 "삼한이 사이 좋게 잘 지내 오늘날 어질고 의로운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다." 라고 하였다.
- 태조(왕건)가 견훤에게 "지난번에 삼한이 화를 당하고 흉년으로 전국이 황폐해져 백성들이 많이 도적이 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삼국사기-

<보기>

- ㄱ. 신라인은 삼한과 삼국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 ㄴ. 당나라는 삼국을 동류(同類)의 국가로 생각하여 삼한이라 불렀다.
- ㄷ. 신라인은 만주 땅을 잃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의 의의를 강조하지 않았다.
- ㄹ. 고려인은 삼국을 가리키는 삼한을 우리나라를 뜻하는 호칭으로 사용하였다.

-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

10. 다음 불교 조형물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진전사지 3층 석탑

- ① 골품 제도를 확립하여 신분 질서를 엄격히 하였다.
- ②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 ③ 지방 호족들의 정치적 역량이 크게 성장하였다.
- ④ 12 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 ⑤ 경원 이씨 가문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 80여년간 권세를 누렸다.

11. 다음 자료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3 점]

○ 권근 등이 상소하기를, “병권은 국가의 큰 권세이니, 나누어서 관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이제부터라도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각 도의 절제사들을 모조리 없애고, 서울과 지방의 군사들을 모두 삼군부에 소속시켜 국가의 군사로 삼아서 국권을 무겁게 하고, 인심을 편안케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종실록—

○ 허조가 건의하기를, “고려 때에는 이민(吏民)으로서 자기 수령을 고소한 자는 사실이 아닐 경우, 법에 따라 그 집을 헐고 연못을 만든다고 했으니 국가 안위에 관계 없거나 법을 어겨 살인한 죄 말고는 이민이 자기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왕이 허락했다. —세종실록—

- ①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한다.
- ②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한다.
- ③ 향촌 사회에서 사창을 운영한다.
- ④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낸다.
- ⑤ 봉수제를 정비하고 역참을 설치한다.

12. 다음은 조선의 정치 운영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로 인하여 나타날 변화를 적절하게 추론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상왕(단종)이 나이가 어려 무릇 조치하는 바를 모두 의정부 대신에게 논의하게 하였다. 지금 내(세조)가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한다. —세조실록—

—<보기>—

- 갑송: 집현전의 활동이 더욱 중시되었을 거야.
- 을주: 의정부 대신들의 활동이 견제되었을 거야.
- 병철: 의금부나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었을 것 같아.
- 정순: 향약 보급으로 지방 사회가 안정되었을 것 같아.

- ① 갑송, 을주-----② 갑송, 병철-----③ 병철, 정순
- ④ 을주, 정순-----⑤ 을주, 병철

13.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을’의 역사 인식과 거리가 먼 것은?

○ 갑: 너희 나라(고려)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 차지이 되었는데 너희가 침식했다. …(중략)… 그래서 오늘날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 을: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니 그래서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만약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너희 나라(거란)의 동경(東京)도 모두 우리 영토 안에 있는 것이 되니, 어찌 침식이라고 하는가?

- ① 왕건의 북진 정책
- ② 이이의 기사실기 편찬
- ③ 유득공의 발해고 편찬
- ④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 ⑤ 이규보의 동명왕편 편찬

14. 준영이는 조선 시대 농민들의 수취 부담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얻었다. 준영이가 입력했을 검색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아서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였다. 성종 때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을 동원하고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으나 임의로 징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 ① 공납-----② 별공-----③ 진상
- ④ 전세-----⑤ 요역

15. 다음 사상이 조선 시대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

○ 모든 사원은 도선이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을 가려 개창한 것이다. 신라 말 사원을 함부로 지어 나라가 망하였다.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고려사—

○ 아래로는 지맥(地脈)을 살피고 위로는 천심(天心)을 헤아려 묘지를 써야 하니, 이는 천만대 후손에게 미칠 경사(慶事)를 보전하는 것이요, 자연의 이치이다. 불법(佛法)은 머무르는 모양이 없고 장례에는 때가 있으니 땅을 가리어 자리 잡는 것이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송복사비문—

- ① 족보의 편찬이 유행하였다.
- ② 명당 선호 경향이 두드러졌다.
- ③ 삼강행실도,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 ④ 연등회와 팔관회의 개최를 장려하였다.
- ⑤ 선현의 제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서원을 설립하였다.

16. 다음 글의 역사관과 일치하는 역사 기술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우리는 역사학에 과거를 재판하고 장래에 유익하도록 인류를 선도한다는 따위의 기능을 기대하여 왔다. 이 글은 그런 허황된 기능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이려 할 뿐이다. …(중략)… 아무리 제약이 많고 아름답지 못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정확히 제시하는 일이 최상의 원리임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보기>—

- ㄱ. 신라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였다.
- ㄴ. 고려 시대 삼별초의 저항은 자주 정신의 표현이었다.
- ㄷ. 조선 시대의 3사는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 ㄹ. 조선 후기에 급료를 받는 군인으로 편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 ㅁ.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동은 근대 경제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었다.

- ① ㄱ, ㄴ, ㄷ-----② ㄱ, ㄴ, ㅁ-----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⑤ ㄷ, ㄹ, ㅁ

17. 다음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이해하기

사회탐구영역

(국사)

위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을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진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 상인들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일성록-

○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의 양반을 대할 때 맞먹듯이 너 나 하며, 자(字)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목민심서-

- ① 양반 수의 변동 및 신분관의 변화
- ② 대외 무역의 발달과 수입품의 변화
- ③ 민영 수공업의 발달과 잡채의 성행
- ④ 병자호란 이후 청 문물의 수입과 그 영향
- ⑤ 아전들의 부정과 이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18. 조선 후기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세 치용 학파가 제시한 해결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부농층은 땅이 넓어서 빈민을 농업 노동에 고용함으로써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향락을 누릴 수 있다. 빈농층 가운데 어떤 농민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하여 살아간다. 농지를 얻지 못한 농민은 남의 머슴이 되어 생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는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유리결식한다.

—<보기>—

- ㄱ.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자.
- ㄴ.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자영농을 육성하자.
- ㄷ.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추진하자.
- ㄹ.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는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자.

-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
- ④ ㄴ, ㄹ-----⑤ ㄷ, ㄹ

19. 다음 사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국왕이 취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붕당의 폐해가 지금보다 심각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예법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닌데, 근래에 들어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붕당의 인사들만 등용하려고 한다.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상대 당을 공격하면서 반역인가 아닌가로 문제를 집중하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영조실록-

- ① 몇몇 세도 가문의 협력을 얻어 정국을 운영하였다.
- ② 붕당을 혁파하고 근대적인 의회 정치를 추구하였다.
- ③ 산림(山林)을 등용하여 붕당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 ④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붕당 간의 갈등을 완화하였다.
- ⑤ 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20. 다음 글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르는 것 중에 혈기를 가진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어느 한 지방을 다스린다면 모두 다 같은 임금이다. 성문을 튼튼하게 하고 해자를 깊게 파서 영토를 잘 지켜 나간다면 어느 것이나 다 나라가 되는 것이다. 화려한 예복이나 몸에 문신을 그리는 것이나 다 같은 풍습에 불과하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안팎의 차별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저마다 제 국민을 사랑하고 제 임금을 존중하고 제 나라를 지키고 제 풍습을 좋아하는 것은 중국과 오랑캐가 다 마찬가지이다.
-의산문답-

—<보기>—

- ㄱ. 개항 이후 개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여 유생층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 ㄴ.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은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고,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하였다.
- ㄷ.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 ㄹ. 김석문은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여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
- ④ ㄴ, ㄹ-----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